

실사단 도착 ... 5만 시민 열렬한 환영

“FISU, FISU” 연호... 유치 열정 뜨거웠다

국제 대학스포츠포럼(FISU) 실사단 6명은 1일 광주공항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열기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날 광주공항 입구와 숙소인 신양파크호텔 앞에는 5만여명의 환영단이 운집, 'We love Universiade', 'Welcome FISU'를 연호하며 대회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열정을 각인했다.

특히 광주시는 환영 만찬에서 이날 43회 생일을 맞은 FISU실사단원인 시니샤 야즈니츠(Sinisa Jasmic·43·세르비아)를 위한 '깜짝 생일파티'를 개최, '광주의 장'으로 실사단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민 환영=실사단이 탄 비행기가 광주공항에 모습을 보이는 순간 공항입구에 모인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이들을 맞이했다. 실사단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환한 미소로 화답한 뒤 박광태 광주시장, 유치위원들과 악수하며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항 입구에서부터 서창교까지 인간띠를 이룬 시민들은 전용버스를 타고 숙소인 신양파크로 향하는 실사단원을 향해 'FISU, FISU'를 연호하며 환영의 물결을 이뤘다.

특히 U대회의 주역인 대학생 자원봉사단 2천여명은 실사단 국기와 대회 광주유치를 환영하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실사단이 도착한 신양파크 호텔 주변에는 2만8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We love universiad', 'Welcome FISU'를 연호하며 실사단을 환영했다.

환영행사에 참가한 김영민씨(35)는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나 다름없는 환영행사에 참가하게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오늘처럼 대회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 하나 모인다면 반드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환호하는 시민들

1일 오후 광안로 도로 주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현지 실사단을 태운 전용 리무진버스가 지나가자 국제대학스포츠포럼기와 실사단원 출신국 국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대학생 봉사단, 실사단 국기 흔들며 분위기 고조
생일맞은 실사위원에 꽃·케이크 전달 '깜짝 파티'

다"며 "오늘처럼 대회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 하나 모인다면 반드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별 감동 이벤트>=미래 U대회의 주역이 될 장원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은 일제히 '작은 세상', '재미 쏙쏙 주말농장' 등 감동적인 동요로 신양파크 호텔에 도착한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뜻밖에 초등학교생들의

환대를 받은 실사단은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시민환영위원회가 열린 만찬장에서는 깜짝 생일파티가 열려 실사위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광주의 추억을 안겨줬다.
이날 광주에서 43회 생일상을 받은 실사위원은 시니샤 야즈니츠씨. 박광태 광주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야즈니츠씨가 생일을 맞

았다는 사실을 알려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연회장 병풍 뒤에 숨어있던 화동 2명이 걸어 나오며 야즈니츠씨에게 꽃과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자 참석자들의 축하박수가 쏟아졌다.

생일 축하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야즈니츠씨는 함박웃음을 머금고 식탁에 마련된 케이크를 절단했고 박광태 시장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흥산 엑기스를 선물로 전달했다.

야즈니츠 위원은 "광주시의 배려와 환대에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 지 모르겠다"며 "두고 두고 잊지 못할 생일파티가 될 것 같다"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사단에 감동 이벤트 선보인다

오늘 오후 옛 도청앞서 유치기원 시민축제
100만인 서명부 꽃마차 실어 실사단에 전달

로 옛 동구청 앞에서 하차해 레드카펫이 펼쳐진 환영이동로를 따라 무대에 오르게 된다.

광주시와 U대회 유치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광주 시민의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

회 유치 의지를 담은 100만인 서명부를 꽃마차에 실어 실사단에 전달한다. 또 광주지역 대학생 대표 6명은 100만인 서명기념 액자를 실사위원에게 기증한다.

실사단은 R&B 그룹 SG 워너비 공연과 한

국의 전통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조선대의 태권무와 웅장한 큰 북 공연을 관람한 뒤 큰 북치기 체험도 갖게 된다. 이들은 오후 9시 개 행사장을 떠나게 되며 행사는 2부로 이어져 댄스가수 렉시, 스위트소로우, 화요비, 린, 유리상자 등 10여개 팀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진다.

소녀시대의 유리과 수영이 사회를 맡을 이날 시민축제는 'M 슈퍼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케이클 체널 M.net을 통해 녹화 중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해 광주의 유치 열정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일 오후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 실사단이 광주공항 대합실에 들어서는 순간 색동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실사단 출신국 국기를 흔들며 뜨겁게 환영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U대회 유치 전망 밝아
李大통령에 지원 요청”

박광태 시장 “러 카잔과 2차 투표까지 갈 것”

박광태 광주시장은 1일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U대회를 카잔으로 유치하기 위해 27개 집행위원국 국가원수들에게 직접 편지와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2월 청와대 서 열린 시·도지사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에 수차례(실사기간 대통령 광지방문 등) U대회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된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당초 2일이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 현지 실사 기간 이어서 시·도지사회의에 최종만 행정부시장을 대신 참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에게 U대회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직접 회의에 참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광주·전남을 방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에서 박 시장과 만나 “광주시가 2013 하계U대회 계획을 잘 수립했다”면서 “광주시가 U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동안 유치전을 통해 집행위원들의 성향과 지지여부에 대해 접수를 매겨보니 1차에서 광주와 러시아 카잔이 동수로 점쳐져 2차 투표로 갈 것 같다”면서 “2차 투표에서 스페인 비고로 간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개최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시장은 “2월까지만해도 체육계와 유치위원을 조차도 광주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했지만 3월부터는 ‘가능성이 있다’, 4월들어서는 ‘승산이 충분하다’며 참여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한다면 꼭 유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 U대회 유치는 경제적 효과나 도시 이미지 상승 등도 만만치 않지만 5·18 이후 지역내에 광배해 있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더욱이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광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고 대회 개최를 계기로 외국 대학생과도 교류협력이 확대돼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U대회 유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6주년 축하합니다. 포른산, 맑은물 장수고장 구례!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주일보 창사 56주년 기념 행사 일정표:
5월 1일: 광주시민축제
5월 2일: 유치기원 시민축제
5월 3일: ...
5월 4일: ...
5월 5일: ...
5월 6일: ...
5월 7일: ...
5월 8일: ...
5월 9일: ...
5월 10일: ...
5월 11일: ...
5월 12일: ...
5월 13일: ...
5월 14일: ...
5월 15일: ...
5월 16일: ...
5월 17일: ...
5월 18일: ...
5월 19일: ...
5월 20일: ...
5월 21일: ...
5월 22일: ...
5월 23일: ...
5월 24일: ...
5월 25일: ...
5월 26일: ...
5월 27일: ...
5월 28일: ...
5월 29일: ...
5월 30일: ...
5월 31일: ...